

2017. 12. 22

# CJ프레시웨이 탐방노트

## 음식료

Analyst 김정욱  
02. 6098-6689  
6414@meritz.co.kr

## Comment

10월 연휴 효과로 일시적 부진. 11월 이후 회복세, 12월 양호한 흐름 예상. 식자재유통 부문 순매출 전환 이유로 절대금액은 다소 부진할 수 있지만 총매출 기준 성장세는 전분기 수준 지속.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단가인상, 비용절감 노력 진행 중. 본사, 프레스원의 대손 가능한 채권 규모 미미한 상황. 4Q17 영업이익의 고성장 흐름 지속 및 일회성 비용 우려 해소 예상

## 외식/급식 유통

순매출 전환 효과 제외 시 매출액 10~11% 증가, 순매출 효과 반영 시 7~8% 감소 예상. 10월 연휴로 부진, 11월 회복 흐름. 신규 수주효과 지속 및 명량핫도그 11월부터 반영. 순매출 전환은 식자재유통 중 체인식당의 전용상품 매출(외식급식유통의 28%, 체인항 매출의 70%)에 해당. 특정 프랜차이즈만을 위한 전용상품 매출액 재고 리스크를 줄이고 GP마진 수준의 매출액을 인식

## 프레스원 유통

분점/지점 확대 효과로 법인별 외형성장은 지속. 부산/중부/전북 법인의 적자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데 본사 주도의 모니터링 개선 작업 진행 중. 지역 위주 조직 개편, ERP 시스템, 통합구매 등 수익성 개선 효과로 전 법인의 흑자 전환은 18년 달성 기대

## 1차 도매 및 원료 유통

CJ제일제당 대형 신제품, HMR 등 매출 호조로 원재료 소싱 확대. 4Q16 순매출 일시에 소급 적용한 기저효과로 4Q17 20~21% 외형성장 예상

## 급식(푸드서비스)

10월 연휴 영향으로 부진. 11월 부터는 3분기 평균 수준을 회복. 12월은 아직 특이사항 없음. 매출성장률 5% 예상. 신규수주 효과 지속, 4Q17부터 인천 제2터미널 반영되지만 연휴 효과와 한파에 따른 골프장 채널 부진이 상쇄될 전망

최저임금 영향은 비용 부담을 상쇄시키기 위한 노력 중. 재계약 사업장은 단가 인상 진행 (급식 업계 전반적으로 가격 인상 분위기인 점은 긍정적). 단가 인상외에도 비용(고정비, 유틸비, 유지/보수비 등)절감을 위한 노력, CK투자를 통한 비용 절감. 송림 푸드 성격의 반가공품 제조 업체 인수도 고려

## 기타내용

브랜드 로열티 감소는 총매출액 -> 순매출액 조정에 따라서 매출절대규모가 줄어드는 효과를 반영했기 때문. 본사와 프레스원 모두 고려했을때 대손 가능성이 있는 채권 규모는 아직 미미함

본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7년 12월 22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 (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권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7년 12월 22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7년 12월 22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정욱)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